

# 失傳醫書「簡奇方」의 復原 연구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Gangibang*, the Long-Lost Medical Book

安相佑(Ahn, Sang-Woo)\*

◁ 목 차 ▷

- |                     |                 |
|---------------------|-----------------|
| 1. 서 언              | 3.2 병증문의 구성     |
| 2. 「簡奇方」 遺文의 傳存     | 3.3 복원내용 고찰     |
| 3. 「簡奇方」 遺文의 採錄과 復原 | 4. 「簡奇方」 복원의 의의 |
| 3.1 복원방법            | <참고문헌>          |

< 초 록 >

「簡奇方」은 이미 오래 전에 失傳된 醫書로 조선 세종 27(1445)년에 편찬된 「醫方類聚」의 인용문헌으로 쓰인 것 이외에 다른 문헌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은 「의방유취」에 인용된 153종의 문헌 가운데 고려시대 궁중의료 치법이 담겨진 「御醫撮要」과 高麗醫書로 考證된 「備豫百要方」에 이어 151번째 주요 인용문헌으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이 고려말 혹은 조선전기의 향약경험이 담긴 의서일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이 책은 현존 252권 분량의 「의방유취」 원문 가운데 병증각문에 걸쳐 많은 내용이 실려 있어 麗末鮮初 의학교류 사실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 의학문헌으로 보인다. 이에 「의방유취」과 「향약집성방」, 「창진집」 등 조선 의서에 남아 있는 遺文과 290조의 경험처방을 채록하여 복원하는 한편, 문헌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하여 실전 의서의 복원연구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要語 : 失傳醫書, 鄉藥, 韓醫學, 醫方類聚, 簡奇方

\* 韓國韓醫學研究院 학술정보부 책임연구원(answer@kiom.re.kr)

접수일: 2008년 9월 8일 최초심사일: 2008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22일

<ABSTRACT>

*Gangibang* is a medical book lost very long time ago and its title was only found in the references of *Uibangyuchwi* compiled in 1445, the 27th year in the reign of King Sejong. This book was listed as the 151st reference in *Uibangyuchwi* in terms of importance, following *Eouichwaryo* and *Biyebaegyobang*, but never traced in other medical books. The former contains healing modalities used for royal families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latter is ascertained to be a medical book during the same period. Thus, this book is presumed to be a medical book which contained Hyangyak, that is, the traditional Korean medical treatment and practices available between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eras.

Thus, this book seems to be a very valuable resource for tracing the development of medical treatment between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era, because its excerpts are found in numerous sections of the existing 252 volumes of *Uibangyuchwi*. Therefore, in this study, an effort was made to form the basis of restoring this long-lost medical book by extracting and recovering its content and features from the excerpts and 290 medical formulae that are preserved in *Uibangyuchwi*, *Hyangyakjipseongbang*, and *Changjinjip*; and investigating its basic features.

Key words : Lost medical book, Hyangyak, Korean medicine, Uibangyuchwi, Gangibang

## 1. 서 언

「簡奇方」은 이미 오래 전에 失傳된 醫書로 그간 歷代史誌著錄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세종 27(1445)년에 편찬된 「醫方類聚」의 引用諸書에 등장한 이래 「鄉藥集成方」, 「瘡疹集」 등 조선 초기에 간행된 의방서에 극히 일부가 인용되었을 뿐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서지사항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미지의 의서이다.

다만 이 방서는 「의방유취」에서 153종의 인용문헌 가운데 고려시대 궁중의료 치법이 담겨진 「御醫撮要」과 高麗醫書로 考證된 「備豫百要方」에 이어 151번째 주요 인용문헌으로 등재되어 있다.<sup>1)</sup> 그간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의방유취 연구진에 의해 일찍부터 고려 혹은 조선의학의 실체가 담겨진 의서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御醫撮要」의 경우, 「東國李相國集」과 「東文選」에 李奎報의 서문이 남아 있었고 「海東文獻總錄」이나 「攷事撮要」· 八道冊板目錄에 수록되어 있어 그 존재가 확실하며, 후대 「동의보감」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의학서에 인용되어 일찍부터 고려의서로 알려졌었다. 또 「비예백요방」은 「의방유취」· 총론에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 가운데 「尙書 金弁經驗」이나 「慎尙書方」과 같은 고려인의 경험의방이 수록됨으로서 고려의서임이 실증적으로 고증되었다.<sup>2)</sup> 이에 반하여 「간기방」은 史誌著錄에 서명이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序跋을 비롯한 명확한 준거가 확보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그 실체가 논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은 현존 252권 분량의 「의방유취」 傳存 원문 가운데 290여조의 경험처방이 채록될 정도로 많은 분량이 실려 있어 당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元明 교체기 혹은 麗末鮮初에 의학교류 사실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 의학문헌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의학의 정통성 확보와 전통의학문헌의

1) 「醫方類聚」· 引用諸書.

2) 안상우, 최환수, 「御醫撮要」-失傳醫書의 복원 I,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4/1, 1998.  
안상우, 高麗 醫書 備豫百要方의 考證, 서지학연구, 제22집, 2001.

복원 차원에서 이 미지의 경험방서에 주목하고 「의방유취」과 「향약집성방」, 「창진집」 등 조선 의서에 남아 있는 遺文을 채록하여 복원하는 한편, 문헌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해 보기로 하였다.

## 2. 「簡奇方」 遺文의 傳存

「簡奇方」은 이미 오래 전에 失傳된 醫書로 그간 歷代史誌著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잘 알고 있다시피 역대 주요문헌들은 역대사서의 「藝文志」나 「經籍誌」 등에 등재되는데, 한당 이후 명대 초기까지 書目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역대 저명 본초서나 대형방서유서에는 서목이 부록되어 있는데, 예컨대 宋代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所出經史方書)라든가 元代 滑壽의 「難經本義」(引用諸家姓名), 明代 徐椿甫의 「古今醫統大全」(採摭諸書), 李時珍의 「本草綱目」(引據古今醫家書目) 등이다. 이러한 대형 의방서의 引用書目에도 이 「간기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역대 의학문헌 서지학자들도 이 책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적이 없는데, 다만 약탈한 「의방유취」를 참고하여 많은 고대의학문헌을 고증하였던 18세기 일본의 고증의학자 丹波元堅의 「雜病廣要」에서는 고려의서인 「비예백요방」을 明代 闕名氏의 저작으로 추정한 반면 「간기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미지의 의서인 「간기방」의 원모를 가장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의방유취」에 인용되어 있는 遺文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문헌에는 「간기방」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四庫全書」를 비롯한 중국의 서적에서 「간기방」의 원문 뿐 아니라 그 책의 존재에 대한 기록조차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 의서에만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의방유취」 이외에 「향약집성방」에 2개 조문이 인용된 것과 「창진집」에 1곳, 「어의촬요」에 인용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서가 우리나라 의서에는 상당 분량 남아있다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 의학의 범주와 특징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역시 「의방유취」에 인용된 保童秘要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3)</sup>

「간기방」이 현재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서적이거나 「의방유취」나 「향약집성방」에 남아 있는 인용문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 말엽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널리 유행했으리라는 점, 그리고 중국 의서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의서에만 기록이 남아있는 失傳醫書라는 점에서 조선 초기 임상의학의 실상을 살펴보는 데 가치가 있는 서적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간기방」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살펴보고 복원 원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간기방」의 기본적인 성격과 기술방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의 서명이 1433년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에 처음 보이고 세종 27(1445)년에 편찬된 「醫方類聚」의 引用諸書에 등장한 이후 「창진집」에만 보이고 이후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략 원명기 혹은 여말선초에 나온 의서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초 초기 의학서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이다. 「태종실록」의 다음 기사에는 「의방유취」에 인용된 많은 서적들이 등장하여 눈길을 끈다.

태종 12년 임진(1412, 영락 10) 8월 7일(기미): 사관 김상직에게 충주 사고의 책을 바치도록 명하다

史官 金尙直에게 명하여 忠州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는데, 「小兒巢氏病源候論」·「大廣益會玉篇」·「鬼谷子」·「五藏六府圖」·「新彫保童秘要」·「廣濟方」·「陳郎中」·「藥名詩」·「神農本草圖」·「本草要括」·「五音指掌圖」·「廣韻」·「經典釋文」·「國語」·「爾雅」·「白虎通」·「劉向說苑」·「山海經」·「王叔和」·「脈訣口義辯誤」·「前定錄」·「黃帝素問」·「武成王廟讚」·「兵要」·「前後漢著明論」·「桂苑筆耕」·「前漢書」·「後漢書」·「文粹」·「文選」·「高麗歷代事迹」·「新唐書」·「神祕集」·「冊府元龜」 등의 책이었다. …… 춘추관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sup>4)</sup>

3) 김두중은 한국의학사에서 보동비요에 대해 ‘본서가 소아과의 전문서로서 당시 고려인들의 실용에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은 이것이 근세 조선초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의 소아과 부문에 九文이나 인용되었다는 데에서 넉넉히 짐작된다’라고 하였다.

4) 「태종실록」 민족문화추진회, “命史官金尙直, 取忠州史庫書冊以進。」「小兒巢氏病源候論」、……「冊府元龜」等書冊也。……命代言柳思訥焚之, 其餘下春秋館藏之。”

위의 기사에서 충주사고에 있던 서적 중 「小兒巢氏病源候論」·「五藏六府圖」·「新彫保童秘要」·「廣濟方」·陳郎中「藥名詩」·「神農本草圖」·「本草要括」·王叔和「脈訣口義辯誤」·「黃帝素問」 등이 의서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簡奇方」이라는 서명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5일 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태종 12년 임진(1412, 영락 10): 8월 12일(갑자)  
춘추관의 의학서적 들을 내약방에 보관하게 하다  
春秋館 소장의 醫方諸書를 內藥房에 거두어 간직하였다.<sup>5)</sup>

연이은 위 기사에서 충주사고에 있던 책을 꺼내 春秋館으로 이관케 하고, 그리고 다시 內藥房<sup>6)</sup>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 책이 단순히 보관용 장서가 아니라, 거대 방서를 편찬하는데 참고하거나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史庫로부터 춘추관을 거쳐 전문 의료기관인 內藥房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30년 후 「鄉藥集成方」(1433년)과 「醫方類聚」(1443-1445년)에 인용된 이 책들은 내약방으로 이관된 이때부터 의관들에 의해 연구되고 임상에 처방을 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경험지식은 조선조 초기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라는 두 가지 거대 방서의 편찬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의방유취」의 인용문은 「간기방」의 현전하는 가장 자세한 기록이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丹波元堅이 의방유취에서 이미 亡失된 서적의 원문을 채록하여 「醫方類聚」採輯本을 만든 바 있는데 그 목록 중에도 「간기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간기방」 인용문은 안문으로부터 여러 병증문목에 걸쳐 인용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한권의 책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의방유취 내의 인용순서에 따른 「간기방」의 위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5) 태종실록, 민족문화추진회. “收貯春秋館所藏醫方諸書于內藥房.”

6) 내약방: 조선 초의 명칭으로 후에 내의원으로 명칭이 바뀜.

1 참조).

<표 1> 「醫方類聚」 인용제서의 순서

黃帝內經素問 - 靈樞 - 運氣 - …… (중략) …… 御醫撮要 - 備預百要方 - <b>簡奇方</b> - 醫經小學 - 小學醫經
--------------------------------------------------------------------------

<표 1>에서와 같이 인용제서에서 「간기방」은 고려의서인 「어의촬요」, 「비예백요방」에 이어 明代 劉純의 醫經小學<sup>7)</sup>과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의방유취」의 편집 원칙은 범례에서 “(인용한) 방서는 모두 世代 先後에 따라 나열하여 문을 나누어 엮어 집어넣고 細目은 나누지 않았다.”<sup>8)</sup>고 밝히고 있다. 또 전후로 고려의서인 「비예백요방」(1230-1240년경 추정)<sup>9)</sup>과 명대 유순의 저작 사이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醫方類聚」의 편집자들은 이 책을 대략 麗末鮮初의 저작으로 생각했으리라 보인다. 하지만 「의방유취」 인용제서의 순서만으로 저술연대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 3. 「簡奇方」 遺文의 採錄과 復原

#### 3.1 복원방법

「간기방」의 복원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의촬요」을 복원한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의방유취」의 편집방식을 분석하여 이를 역으로 적용함으로써 원래의 句文을 採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채록 대상이 되는 「의방유취」 원문은 한국한의학 연구원의 한국고전의학명저총서 DB에서 제공하는 고문헌 텍스트에서 ‘簡奇方’,

7) 1388년 저술, 1438년 陳有戒 刻本 현존.

8)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36, “諸方, 以世代先後, 分門編入, 不問細目.”(의방유취 범례)

9) 안상우, 高麗 醫書 備豫百要方의 考證, 서지학연구, 2001.

‘簡奇’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 채록하였다. 아울러 검색시 원문의 오자나 입력된 텍스트의 오류를 감안하여 비슷한 음가나 유사한 한자를 대입하여 폭 넓게 검색한 다음 원문대조를 통해 적부를 판단함으로써 누락의 우려를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전산검색 방식을 채택한 것은 간편하고 신속해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의방유취」의 독특한 편집방식에 따라 다른 인용문헌에 비교 취합되거나 중복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의 「의방유취」, 「법례」를 통해 독자적인 편집방식을 이해하고 원문을 분석하여 채록하는 방법의 기준을 삼도록 한다.

- 1) 한 문안에 한 가지 약방이 거듭 나오는데 그 적응증·약재·먹는 방법에 다른 점이 없으면 처음 보이는 곳에 아무 처방과 같다고 적고,(내용이)대개는 같고 조금 다르면 그 다른 부분만을 따서 첨부했으며, 조금만 같고 대부분이 다르면 처방 전체를 붙여 적었다.<sup>10)</sup>
- 2) 모든 방서의 이론은 중복된 것을 빼버리고 적지 않되 ‘어느 책과 같다(某方同)’고 적고 혹 글의 내용은 동일하되 앞뒤가 조금 다르면 대략 머리말을 들어 쓴 다음에 같은 부분은 “云云”이라고 적고 이어서 뒷말을 썼다.<sup>11)</sup>
- 3) 한 가지 약방의 증상과 치료가 여러 가지 병에 겸한 경우에는 각 문에 나누어 적지 않고 다만 본래의 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에 의거하여 적었다.<sup>12)</sup>
- 4) 대개 같은 처방이 다시 나오는 것은 처음 나오는 방서에 붙여 놓았다. 만약 ‘得效方’이나 ‘玉機微義’등과 같이 꼬리를 물고 연달아 쓰인 경우에는 또 본방에 있는 약방명만 쓰고 후에 처방은 아무 책에 있다(方見某方)고 하였다.<sup>13)</sup>
- 5) 모든 方書의 본문에 ○(圈點)이 쳐진 것은 한 글자 간격을 비우고 적었다. 이 책에서 덧붙여 기록한 경우에는 처음 붙인 방서의 이름 위에 ○을 쳐서

---

10) “一門內一藥重出, 而治證·藥材·服法無加減, 則於初見處, 書某方同, 大同小異, 則其異者分附, 小同大異, 則全方附錄.”  
 11) “諸方論去其重複不書, 某方同或文同, 而首尾稍異, 則略舉首語, 而書云云, 連書其尾語.”  
 12) “一藥證治兼諸病者, 不分書各門, 但依本方所載之門書之.”  
 13) “凡藥再見者, 於初見方附之. 若 得效方·玉機微義等首尾相連之書, 則又于本方只書藥名, 注云方見某方.”

원문과 구별하였다. 약재 밑에 이 책에서 붙인 주도 역시 모두 ○을 표시했다.<sup>14)</sup>

- 6) 한 처방 안에 다른 책의 것을 덧붙여 기록할 때는 처음 쓰는 데만 책명을 제대로 다 적고 계속하여 쓰는 경우에는 약칭해서 거명했다. 예컨대 처음에 ‘巢氏病源’이라고 적었다면 그 다음에는 ‘巢源’이라고 적는 것과 같은 종류이다.<sup>15)</sup>

위와 같이 「의방유취」·「범례」에 나타난 편집방식에 근거하면 「의방유취」안의 「간기방」편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비교 축합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편의 내용만 채록해서는 전문에 인용된 모든 내용을 간추리기는 거의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간기방」편 이외의 다른 인용서에 축합된 「간기방」 인용을 전산검색을 통해 낱낱이 찾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3.2 병증문의 구성

「간기방」의 서문이나 목차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서의 편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본고에서는 「의방유취」의 병증 각문에 골고루 「간기방」이 인용된 점에 착안하여 「간기방」이 인용된 병증문을 가려 뽑아 순차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원형에 근접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앞서 제시된 범례의 원칙 가운데 “한 가지 약방의 증상과 치료가 여러 가지 병에 겸한 경우에는 각 문에 나누어 적지 않고 다만 본래의 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에 의거하여 적었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록한 병증문이 원서의 해당 문과 일치하거나 근접하게 배열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본 복원문의 차서와 병증 각문의 분류는 「간기방」의 본래 편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며, 정확한 편제의 복원은 새로운 자료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14) “諸方本文加圈者, 空一字書之. 今附錄者, 首附方名上加圈別之. 藥材下今附注亦皆圈之.”

15) “一藥內他方附錄時, 首書者備舉方名, 繼書則略舉, 如首書「巢氏病源」, 則繼書「巢源」之類.”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제풍문 이하 소아문에 이르기 까지 91문 가운데 44문의 병증 각문에 걸쳐 치료처방이 다양하게 검출되어 경험방서의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특히 총론과 오장문의 내용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이 책이 이론서이기 보다는 실천적인 임상방제 위주의 경험의약서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의방유취 병증각문을 차서대로 열거하고 이 가운데 「간기방」이 검출되는 병증 각문을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 「간기방」의 편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재구성한 「간기방」의 병증문

「諸風門」, 「諸暑門」, 「傷寒門」, 「眼門」, 「齒門」, 「咽喉門」, 「口舌門」, 「耳門」, 「鼻門」, 「毛髮門」, 「血病門」, 「諸氣門」, 「諸疝門」, 「心腹痛門」, 「腰脚門」, 「脚氣門」, 「脾胃門」, 「飜胃門」, 「霍亂門」, 「積聚門」, 「咳嗽門」, 「諸瘡門」, 「水腫門」, 「諸淋門」, 「大小便門」, 「諸痢門」, 「諸虛門」, 「積熱門」, 「解毒門」, 「酒病門」, 「疥癬門」, 「癰疽門」, 「疔瘡門」, 「癩癰門」, 「痔漏門」, 「便毒門」, 「金瘡門」, 「諸刺門」, 「折傷門」, 「諸瘡門」, 「湯火傷門」, 「養性門」, 「婦人門」, 「小兒門」
-------------------------------------------------------------------------------------------------------------------------------------------------------------------------------------------------------------------------------------------------------------------------------------------------------------------------------

### 3.3 복원 내용 고찰

앞서 제시한 검색방식에 따라 「간기방」 본편에 인용된 것 이외에 여타 인용의 서편에서 발췌된 기록은 모두 262조였다. 이것은 「의방유취」 전문에서 채록한 288조 가운데 「간기방」편에서 독립적으로 인용된 26조를 제외하고 전체 인용문의 9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인다.

또한 1차 발췌된 인용문은 2차로 상호 대조를 통하여 중복처방을 수합하고 「향약집성방」과 「찬집」의 인용문을 합한 결과 290조의 처방이 정리되었다. 「향약집성방」, 혹은 「의방유취」 내 「간기방」편과 여타 편에서의 중복하여 수록한 처방들은 대개 약간의 문자 출입이 있으나 처방구성이나 주치증이 다른 경우가 아니면 동일 처방으로 간주하고 취합하였다. 이때 원문 문자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인용원문의 전재를 원칙으로 하는 「의방유취」의 발췌문을 정문으로 선택하였고 대조 인문은 고안에 함께 수록하여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의방유

취, 「간기방」편에서는 처방명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無名方으로 기재하였다. 특히 적응증이나 치법이 같은 경우, 한 가지 대표 처방 아래 ‘又方’이라 적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약집성방」의 인용문 2조는 모두 傷寒門의 暑증항목에 수재되어 있는데, 「의방유취」에서는 諸暑門이 傷寒門에 앞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서문의 편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또한 「창진집」에 수록된 三痘飲 1조문은 「의방유취」권264, 소아 진두문의 처방과 동일처방으로 관명하여 위치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래는 「의방유취」의 병증 각문<sup>16)</sup>별로 「간기방」이 수록된 인용조문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표시하여 대비하였다(표 3 참조).

<표 3> 의방유취 병증각문 중 「간기방」 인용조문

병증문	인용수	병증문	인용수	병증문	인용수
總論	0	沙證門	0	諸蟲門	0
五藏門	0	眩暈門	0	辟蟲門	0
諸風門	15(1)	宿食門	0	蟲傷門	0
諸寒門	0	積聚門	7	獸傷門	0
諸暑門	3	咳逆門	0	癰疹門	0
諸濕門	0	咳嗽門	2	疥癬門	1
傷寒門	6	聲音門	0	諸臭門	0
眼門	19	諸瘡門	6	癰疽門	12(3)
齒門	12(1)	消渴門	0	丁瘡門	3
咽喉門	21	水腫門	4	丹毒門	0
口舌門	7	脹滿門	0	瘰癧門	1
耳門	18	黃疸門	0	諸癩門	0
鼻門	13	諸淋門	9	癰瘤門	0
頭面門	0	赤白濁門	0	痔漏門	5
毛髮門	6	大小便門	16(9)	便毒門	1
身體門	0	諸痢門	6	金瘡門	5
四肢門	0	泄瀉門	0	諸刺門	2

16) 전체 91문으로 되어있고, 부인, 소아는 세분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대문만 기재.

血病門	6	諸虛門	1	折傷門	3
諸氣門	9	勞瘵門	0	諸瘡門	14(1)
諸疝門	3	癩冷門	0	膏藥門	0
陰癩門	0	積熱門	3	湯火傷門	9
諸瘰門	0	火門	0	漆瘡門	0
心腹痛門	(4)	虛煩門	0	怪疾門	0
腰脚門	2	驚悸門	0	救急門	0
脚氣門	5	健忘門	0	雜病門	0
脾胃門	4	諸汗門	0	諸湯門	0
三焦門	0	癩癩門	0	諸香門	0
飜胃門	3(1)	中惡門	0	養性門	2
嘔吐門	0	解毒門	2	婦人門	31
膈噎門	0	酒病門	1	小兒門	3
霍亂門	1	蠱毒門	0	총91문	계44문

\*( )안의 숫자는 동일 처방이 서로 다른 2문에 걸쳐 인용된 것으로 처방은 하나로 취합한 경우이다.

### 3. 「簡奇方」復原의 의의

이상 「간기방」 복원 연구를 통해 얻게 된 몇 가지 견해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간기방」은 역대사지저록에 전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의서로 조선 초기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창진집」의 인용문을 통해서만 遺文이 발견되어 그 원모를 알기 어렵다. 이처럼 중국의 문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험방서가 조선 초기의 고유의학문헌에만 남아있다는 것은 이 책의 傳存이 조선의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대략 「창진집」에 인용된 이후 조선의서에서도 서명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이 집필되기 이전에 이미 일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다행이도 「의방유취」에 남겨진 유문을 통해 그 모습의 대강을 살펴볼 수 있기에 「의방유취」 편찬방식을 분석하여 인용방식을 역으로 적용, 해당원문을 채록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간기방」의 원모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었다. 이는

「의방유취」의 범례에 근거하여 「의방유취」 내 병증각문에 산재되어 인용된 「간기방」 유문을 288조 채록하였고 「향약집성방」과 「창진집」에 인용된 처방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중복된 내용과 유사 처방을 비교 대조하여 축합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 원문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290조의 「간기방」 원문을 복원할 수 있었다(표 4 참조).

「의방유취」 내 병증각문에 인용된 「간기방」의 인용원문을 기준으로 편제를 재구성해 본 결과 제풍문 이하 소아문에 이르기 까지 91문 가운데 44문의 병증각문에 걸쳐 치료처방이 다양하게 검출되어 경험방서의 체제를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총론과 오장문의 내용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이 책이 이론서이기 보다는 실천적인 임상방제 위주의 경험의약서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간기방」의 처방을 분석한 결과, 주로 元代에 간행된 미연구 실전의서인 經驗秘方과 가장 유사도가 높고 수록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원의 간첩기에 도래한 내용이 많이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고려 전승경험이 담긴 「비예백요방」과의 유사도는 단 6방 만이 취합 대조되어 계통성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대조처방이 나타나지 않은 「간기방」 단독 인용내용의 경우, 무명방이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이점 또한 「간기방」이 여말선초 향약 전승경험을 담은 문헌일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표 4> 「간기방」 처방의 출전별 대조표

문항	처방명	의방유취 출처	의방유취 내 대조 인용서		비고
		권/문/편/제	동일계열	유사계열	
1	加減順氣散	권20 諸風門 簡易方 권23 諸風門 經驗秘方			
2	如聖膏	권22 諸風門 得效方 風科 癩風	經驗秘方 壽域神方	澹軒方	
3	무명방	권23 諸風門 瑞竹堂方 諸風	經驗秘方 衛生易簡方		
4	四聖紫金丹	상동	經驗秘方 衛生易簡方		
5	무명방	상동	經驗秘方		
6	무명방	권23 諸風門 經驗秘方			
7	玉液湯	권23 諸風門 經驗秘方			

8	무명방	권23 諸風門 經驗祕方 中風		壽域神方 衛生易簡 方 急救仙方	
9	무명방	상동			
10	무명방	권23 諸風門 經驗祕方 頭風			
11	무명방	상동			
12	무명방	상동			
13	무명방	상동			
14	무명방	상동			
15	무명방	권25 諸暑門 簡易方 暑證			
16	醍醐湯	권26 諸暑門 經驗祕方 中暑			
17	무명방	상동			
18	神授太乙散	권55 傷寒門29 是齋醫方	急救仙方		經驗祕方
19	雄黃丸	권62 傷寒門36 拔粹方 傷寒六經諸證 雜方	經驗祕方		
20	神朮散	권62 傷寒門36 經驗祕 方 傷寒			
21	大羌活湯	상동			
22	通氣散	상동			
23	七聖餅子	상동			
24	무명방	권66 眼門3 聖惠方2 治 眵目諸方	經驗祕方 急救仙方		
25	무명방	권67 眼門4 是齋醫方 目疾	經驗祕方 肘後方	備預百要方	韜光傳清源居士備急 方同
26	經驗地黃圓	권67 眼門4 和劑局方 治 眼目疾	經驗祕方		화제국방에는 '地黃元'
27	電巖丸	권68 眼門5 宣明論 眼科	經驗祕方		선명론에는 '雷巖丸'
28	黃連膏	권69 眼門6 瑞竹堂方 眼	衛生易簡方		
29	雙美丸	상동	經驗祕方		
30	靈光還睛膏	상동	經驗祕方	瑞竹堂方	
31	무명방	권70 眼門7 經驗祕方 眼目			
32	復明丹	상동			
33	神聖復明圓	권70 眼門7 經驗祕方			
34	무명방	권70 眼門7 經驗祕方 種空靑法			
35	茯苓正氣散	상동			
36	무명방	상동			
37	무명방	상동			
38	무명방	상동			

失傳醫書「簡奇方」의 復原 연구

39	무명방	권70 眼門7 經驗祕方 諸般眼疾			
40	固本丸	권70 眼門7 簡奇方			
41	還明元	상동			
42	무명방	상동			
43	五倍子散	권72 齒門2 御藥院方			
44	무명방	권72 齒門2 瑞竹堂方 髮齒	經驗祕方	瑞竹堂經驗方	
45	雄黃定痛膏	권72 齒門2 醫方大成 牙齒	經驗祕方	衛生易簡方 袖珍方 普濟方 易簡方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楊氏家藏方
46	立效丸	권73 齒門3 經驗祕方			
47	麝香攀雄散	상동			
48	止痛散	상동			
49	失笑散	상동			
50	如神散	상동			
51	무명방	권73 齒門3 經驗祕方 局方黑錫丹			
52	무명방	상동			
53	麝香散	권73 齒門3 簡奇方			
54	靑金膏	상동			
55	무명방	권73 咽喉門1 千金方 喉病	經驗祕方		
56	무명방	상동	神巧萬全方 經驗祕方		
57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聖惠方		必效方
58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59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60	무명방	상동	肘後方 經驗祕方 壽域神方		瑣碎錄
61	무명방	권73 咽喉門1 千金月令	經驗祕方 備預百要方		
62	무명방	권73 咽喉門1 聖惠方 治咽喉閉塞不通諸方			
63	무명방	권74 咽喉門2 是齋醫方	經驗祕方 急救仙方		
64	무명방	권74 咽喉門2 得效方 骨鯁			經驗祕方
65	무명방	권75 咽喉門3 居家必用			經驗祕方
66	奪命丹	권75 咽喉門3 經驗祕方 咽喉		煙霞聖效方 聖效方 聖效方	
67	烏龍膏	상동			
68	碧玉散	상동			
69	무명방	상동			
70	무명방	상동			
71	무명방	상동			

72	무명방	상동			
73	무명방	상동			
74	무명방	상동			
75	吹喉散	상동		瘡科通玄論	
76	黑散子	권76 口舌門 千金方 舌病			經驗祕方
77	무명방	권76 口舌門1 是齋醫方			經驗祕方
78	무명방	권76 口舌門1 瑣碎錄 舌 衄方	經驗祕方		
79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80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81	百草霜散	권77 口舌門2 附腎 嚴氏 濟生續方	經驗祕方 救急仙方 衛 生易簡方		
82	무명방	권77 口舌門2 附腎 經驗 祕方			
83	무명방	권77 耳門1 千金方 耳疾	經驗祕方 經驗良方		
84	무명방	상동	瑣碎錄 經驗祕方 經驗 良方 急救仙方		
85	무명방	상동	瑣碎錄 經驗祕方		
86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山居四要 備 預百要方		
87	菖蒲浸酒方	권77 耳門1 聖惠方 治耳 虛鳴諸方	經驗祕方		
88	무명방	권77 耳門1 聖惠方 治耳 疼痛諸方	經驗祕方		
89	무명방	권78 耳門2 聖惠方 2 治 百蟲入耳諸方	經驗祕方 經驗良方		
90	무명방	상동	瑣碎錄 肘後方 經驗祕 方 壽域神方	直指方 衛生寶鑑	
91	무명방	권78 耳門2 瑣碎錄 百蟲 入耳方	經驗祕方 經驗良方		
92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肘後方 神方	
93	무명방	권78 耳門2 瑞竹堂方	經驗祕方		
94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衛生易簡方		
95	무명방	권78 耳門2 經驗祕方			
96	무명방	상동			
97	무명방	상동			
98	무명방	상동			
99	무명방	상동			
100	무명방	상동			
101	무명방	권79 鼻門2 聖惠方 治鼻 衄不止諸方			
102	萊蕪飲	권79 鼻門2 是齋醫方 衄血	經驗祕方		嚴氏濟生續方

失傳醫書「簡奇方」의 復原 연구

103	무명방	권79 鼻門2 瑣碎錄 鼻衄方	簡易方 經驗祕方		
104	무명방	상동	簡易方 聖濟總錄 經驗 祕方 衛生易簡方		
105	무명방	권79 鼻門2 簡易方	經驗祕方 經驗良方 急救仙方 備預百要方		
106	龍骨散	상동	經驗祕方	集驗方 易簡方 聖 濟總錄	嚴氏濟生方
107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108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109	四味理中湯	권79 鼻門2 經驗祕方			
110	무명방	상동			
111	무명방	상동			
112	側柏散	상동			
113	무명방	상동			
114	무명방	권83 毛髮門2 經驗祕方 刷牙烏髭鬚			
115	經進追異玄 元丹	상동			
116	무명방	상동			
117	靑絲散	권83 毛髮門2 經驗祕方 刷牙烏髭鬚 권73 齒門3 經驗祕方 刷 牙烏髭鬚			
118	烏髭牢牙散	상동			
119	무명방	상동			
120	무명방	권84 血病門1 千金方 吐血	經驗祕方		
121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122	무명방	권85 血病門2 經驗祕方			
123	무명방	상동			
124	무명방	상동	急救仙方 衛生易簡方		
125	무명방	상동	急救仙方	衛生易簡方	
126	무명방	권89 諸氣門4 經驗祕方 諸氣			
127	무명방	상동			
128	무명방	상동			
129	무명방	상동			
130	應痛丸	권89 諸氣門4 經驗祕方 諸氣 권93 心腹痛門 瑞竹堂方 心氣痛			

131	蠶沙散	권89 諸氣門4 經驗祕方 諸氣 권93 心腹痛門 瑞竹堂 方 心氣痛			
132	神仙珍珠散	권89 諸氣門4 經驗祕方 諸氣 권94 心腹痛門3 簡奇方			
133	歸神丹	상동			
134	延年護命丹	권89 諸氣門4 簡奇方 권104 翻胃門2 簡奇方			
135	奪命丹	권90 諸疝門2 和劑局方	瑞竹堂方	醫方大成 集成 南 北經驗方 袖珍方 永類鈴方 衛生易 簡方 玉機微義	
136	香妙丸	권90 諸疝門2 瑞竹堂方 小腸疝氣			
137	무명방	권91 諸疝門3 簡奇方			
138	무명방	권95 腰脚門2 經驗祕方 腰疼			
139	무명방	상동			
140	五加皮酒	권98 脚氣門3 經驗祕方			
141	무명방	상동			
142	무명방	상동			
143	무명방	상동			
144	무명방	상동			
145	異功散	권102 脾胃門 金匱鉤玄 簡奇方			
146	木瓜健勝元	상동			
147	무명방	권104 翻胃門2 經驗祕方			
148	무명방	권104 翻胃門2 經驗祕方	急救仙方 衛生易簡方		
149	무명방	권108 霍亂門 王氏集驗方 霍亂			經驗祕方
150	小青木香圓	권113 積聚門 經驗祕方 積聚			
151	무명방	상동			
152	沈香消痞丸	상동			
153	무명방	상동			
154	무명방	상동			
155	取蟲宣積丸	상동			
156	靈砂丹	상동			
157	무명방	권117 咳嗽門 御藥院方 痰飲			經驗祕方

失傳醫書「簡奇方」의 復原 연구

158	무명방	권119 欬嗽門6 瑞竹堂方 痰飲			經驗祕方
159	무명방	권121 諸瘡門1 千金方 溫瘡			經驗祕方
160	무명방	권122 諸瘡門2 和劑局方			經驗祕方
161	무명방	권122 諸瘡門2 是齋醫方 瘡疾 瘴氣			經驗祕方
162	祛瘡丹	권123 諸瘡門3 經驗祕方 瘡瘡			
163	무명방	상동			
164	무명방	상동			
165	무명방	권127 水腫門2 千金方 水腫			是齋醫方
166	香棗丸	권129권 水腫門4 袖珍方 水腫	經驗祕方		
167	무명방	권129권 水腫門4 經驗祕方 蠱氣			
168	무명방	상동			
169	무명방	권132 諸淋門1 千金月令 권136 大小便門 經驗祕方 祕澁淋瀝 熱在下焦小便不通治驗	簡易方	聖惠方	
170	무명방	상동	簡易方		
171	무명방	권132 諸淋門1 千金月令 권136 大小便門 經驗祕方 祕澁淋瀝 熱在下焦小便不通治驗			簡易方
172	무명방	권133 諸淋門2 簡易方 권136 大小便門 經驗祕方 祕澁淋瀝 熱在下焦小便不通治驗			
173	滋腎圓	권133 諸淋門2 東垣試效方 小便淋閉 권136 大小便門 經驗祕方 祕澁淋瀝 熱在下焦小便不通治驗		玉機微義	136권에는 '滋腎丸' 蘭室祕藏堂 名'通關 丸'
174	清肺飲子	권133 諸淋門2 東垣試效方 小便淋閉 권136 大小便門 經驗祕方 祕澁淋瀝 熱在下焦小便不通治驗		拔粹方 蘭室祕藏	
175	導氣除濕湯	권133 諸淋門2 東垣試效方 小便淋閉 권136 大小便門 經驗祕方 祕澁淋瀝 熱在下焦小便不通治驗		蘭室祕藏	권133에는 '導氣除濕 湯'. '簡奇方燥作濕'의 주문과 권136에 의거

176	무명방	권133 諸淋門2 簡奇方 권136 大小便門 經驗祕方 祕澁淋瀝 熱在下焦小便不通治驗			
177	導赤散	권133 諸淋門2 簡奇方 권136 大小便門 經驗祕方 祕澁淋瀝 熱在下焦小便不通治驗			
178	무명방	권135 大小便門 瑣碎錄 治大小便不通方	經驗祕方		
179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180	무명방	권136 大小便門 經驗祕 方 祕澁淋瀝 熱在下焦 小便不通治驗			
181	무명방	상동	急救仙方		
182	무명방	상동			
183	무명방	상동			
184	무명방	상동			
185	純陽真人養 臟湯	권138 諸痢門 和劑局方 瀉痢	經驗祕方	太平惠民和劑局 方 經驗祕方 滄寮 方 大成 玉機微義 衛生寶鑑	
186	무명방	권141 諸痢門 簡奇方			
187	무명방	상동			
188	무명방	상동			
189	무명방	상동			
190	五味子散	권141 諸痢門 瑞竹堂方 瀉痢	經驗祕方		
191	補骨脂元	권150 諸虛門8 朱氏集驗方	經驗良方 壽親養老書		
192	무명방	권157 積熱門 經驗祕方 積熱			
193	清心蓮子飲	상동			
194	藕汁膏	상동			
195	神仙追毒丸	권163 解毒門3 是齋醫方 解毒			經驗祕方
196	무명방	권163 解毒門3 瑣碎錄 治藥毒	經驗良方 經驗祕方		
197	무명방	권164 酒病門 瑣碎錄 治酒毒方	煙霞聖效方	經驗良方	
198	如聖膏	권169 疥癬門2 衛生易簡方 疥癬 권191 諸瘡門4 瘡科通 玄論 諸瘡		經驗祕方	
199	內托散	권174 癰疽門 簡易方 癰疽瘡癤	經驗良方		

失傳醫書「簡奇方」의 復原 연구

200	金銀花散	권175 癰疽門6 衛生寶鑑 瘡腫	經驗祕方	外科精義 瘡科精義	
201	當歸連翹飲	권176 癰疽門7 袖珍方 癰疽		瘡科通玄論 端效方	'間奇方與祕方同'에서 '間'은 '簡'의 오기로 여겨 복원.
202	解毒圓	권176 癰疽門7 瘡科通玄論	經驗祕方		
203	乳香黃耆散	상동			
204	通開散	176 癰疽門 7 永類鈴方 瘡科通玄論 권176 癰疽門7 瘡科通玄論		易簡方 經驗祕方	
205	麝香蟾酥圓	권176 癰疽門7 永類鈴方 瘡科通玄論 권176 癰疽門7 瘡科通玄論		經驗祕方	
206	乳香拔毒散	권176 癰疽門7 永類鈴方 瘡科通玄論 권176 癰疽門7 瘡科通玄論	經驗祕方		
207	무명방	권178 癰疽門9 簡奇方			
208	무명방	상동			
209	무명방	상동			
210	무명방	상동			
211	무명방	권179 丁瘡門2 經驗祕方			
212	무명방	상동			
213	무명방	권179 丁瘡門2 簡奇方			
214	如聖餅子	권180 瘰癧門2 瘡科通玄論 瘰癧瘡		經驗祕方 衛生易簡方	
215	무명방	권184 痔漏門3 急救仙方			
216	黃連木香湯	권184 痔漏門3 簡奇方			本卷引經驗祕方 黃連木香湯同
217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218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219	무명방	상동		經驗祕方	
220	무명방	권184 便毒門 經驗祕方			
221	黃石膏	권185 金瘡門2 是齋醫方	經驗祕方	瑣碎錄 衛生寶鑑	
222	무명방	권185 金瘡門2 外科精要 金瘡箭鏃	經驗祕方 急救仙方 衛生易簡方		
223	무명방	권185 金瘡門2 得效方 通治			經驗祕方
224	무명방	권185 金瘡門2 經驗祕方	衛生易簡		

225	무명방	상동	急救仙方		
226	接骨散	권187 折傷門2 經驗祕方 諸物傷			
227	무명방	권185 諸刺門 聖惠方 治竹木刺在肉中不出諸方	是齋醫方 瑣碎錄 經驗祕方 急救仙方		急救仙方
228	무명방	권185 諸刺門 瑞竹堂方	經驗祕方		
229	무명방	상동			
230	무명방	상동			
231	消風散	권191 諸瘡門4 瘡科通玄論 諸瘡		經驗祕方	
232	追毒烏金散	상동	經驗祕方		
233	針頭散	상동	經驗祕方		
234	潰膿散	상동	經驗祕方		
235	桃花散	상동	經驗祕方		
236	麝香輕粉散	상동		經驗祕方	
237	追毒散	상동	經驗祕方		
238	消毒散	상동		經驗祕方	
239	神應膏	상동	經驗祕方		
240	靑金膏	상동	經驗祕方		
241	玉粉散	권191 諸瘡門4 經驗祕方 瘡腫			
242	內消散	상동			
243	무명방	권193 諸瘡門6 簡奇方			千金翼
244	무명방	권194 湯火傷門 醫方大成	經驗祕方 經驗良方 急救仙方		經驗續方
245	무명방	상동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 經驗祕方 經驗良方 衛生易簡方		經驗方
246	무명방	권194 湯火傷門 經驗祕方			
247	무명방	상동	經驗良方		
248	무명방	상동			
249	무명방	상동	經驗良方		
250	무명방	상동			
251	무명방	권194 湯火傷門 聖惠方	瑣碎錄		經驗祕方 衛生易簡方 簡奇方
252	무명방	권194 湯火傷門 是齋醫方	經驗祕方 山居四要 衛生易簡方		瑣碎錄
253	무명방	권204 養性門6 經驗祕方			
254	무명방	상동			
255	무명방	권219 婦人門10 乳癰 簡奇方			

失傳醫書「簡奇方」의 復原 연구

256	무명방	권228 婦人門23 產難 1 千金方		肘后方 良方 胎產 方 聖惠方 備預百 要方 良方 胎產方 得效方	
257	무명방	권228 婦人門23 產難 1 千金方 子死腹中	聖惠方 婦人大全良方 澹軒方 經驗良方		
258	무명방	권228 婦人門23 產難 1 千金方 逆生		聖惠方 神巧萬全方 肘后方 永類鈴方 經驗良方 鎖碎錄 管見大全良方 婦人 大全良方 徐氏胎產 方 玉機微義	
259	무명방	권228 婦人門23 產難 1 產寶 療難產方	良方 山居四要	肘后方	
260	무명방	권228 婦人門23 產難 1 產寶 難產死生方		聖惠方 管見大全 良方 婦人大全良 方 得效方 衛生易 簡方	
261	무명방	권228 婦人門23 產難 1 聖惠方 治產難子死腹 中諸方	管見大全良方 婦人大 全良方		
262	如聖膏	권228 婦人門23 產難 1 聖惠方 治產難諸方			良方
263	무명방	권228 婦人門23 產難 1 聖惠方 治橫產諸方	婦人大全良方 山居四 要		
264	무명방	상동	婦人大全良方 得效方		
265	催生丹	권228 婦人門23 產難 1 和劑局方	衛生寶鑑 永類鈴方	婦人大全良方 拔 粹方 玉機微義 簡 易方 王氏集驗方 醫方集成 南北經 驗方 袖珍方 衛生 易簡方 得效方 經 驗良方	
266	催生如聖散	상동	瑣碎錄 簡易方 管見大 全良方 婦人大全良 方 永類鈴方	經驗祕方	
267	무명방	상동	管見 婦人良方	鈴方 濟生	
268	催生藥	권229 婦人門24 產難 是 齋醫方		婦人大全良方 得 效方 經驗良方	婦人大全良方 名'催 生萬全不傳遇仙丹' 經驗良方 名'雄黃圓'
269	桂香散	권229 婦人門24 產難 是 齋醫方	婦人大全良方 寶鑑	朱氏集驗方 徐氏 胎產方 澹軒方 拔 粹方 經驗良方 胎 產方	朱氏集驗方 名'單桂 飲' 徐氏胎產方 名'奪命 散'
270	催生神妙乳 珠丹	권229 婦人門24 產難 婦 人大全良方 催生方論	得效方	普濟方	

271	무명방	권229 婦人門24 產難 婦人大全良方 產難子死腹中方論	永類鈴方	拔粹方	
272	一字神散	상동	得效方		
273	무명방	권229 婦人門24 產難 千金方 胞胎不出	婦人大全良方		
274	무명방	권229 婦人門24 產難 聖惠方 治胞衣不出諸方	婦人大全良方	神巧萬全方 備預百要方	
275	무명방	권229 婦人門24 產難 胎產救急方 胞衣不下			婦人大全良方
276	무명방	상동	婦人大全良方		
277	무명방	권229 婦人門24 產難 婦人大全良方 胞衣不出			
278	무명방	상동			廣濟
279	무명방	권230 婦人門25 산후 1 千金方	婦人大全良方		
280	桃人煎	권230 婦人門25 산후 1 千金方 虛損	婦人大全良方	產寶	
281	紅藍花酒	권233 婦人門28 산후 4 治產後血運悶絕諸方			婦人大全良方
282	黑神散	권234 婦人門29 산후 5 和劑局方			
283	琥珀黑龍丹	상동	得效方	婦人大全良方 簡易方 太平惠民和劑局方 三因方 簡易方	婦人大全良方
284	地黃散	권235 婦人門30 產後6 婦人大全良方 產後惡露不盡腹痛方論		拔粹方 南北經驗方 徐氏胎產方 袖珍方 易簡方 衛生易簡方	
285	花蕊石散	권238 婦人門33 產後 9 永類鈴方			
286	蒲黃散	권241 小兒門3 三因方			
287	化毒散	권264 小兒門26 疹痘 2 御藥院方	得效方		得效方 名'捷效化毒散'
288	三豆飲	권264 小兒門26 疹痘 2 得效方 疹瘡瘡疹集 卷中 ○預防之劑 得效方	澹寮方 醫方集成 經驗方 袖珍方 永類鈴方 經驗良方 壽域神方 衛生易簡方		
289	무명방	鄉藥集成方 卷第9 傷寒門 晷			
290	香薷散	상동			得效方に 적용증상만 기록.

<참고문헌>

- 金南一. 鄉藥集成方の 引用文獻에 대한 연구, 진단학회 한국고전연구심포지엄, 1998.
-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81.
- 金禮蒙, 全循義 等撰. 浙江省中醫研究院, 湖州中醫學院 校點. 「醫方類聚」.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 盧重禮, 俞孝通, 朴允德 等, 鄉藥集成方, 서울: 한성도서, 1942.
-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丹波元堅. 「雜病廣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증보판.
- 申榮日,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4.
- 沈喞俊, 韓國逸書研究, 서울: 일지사, 1985.
-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2000.
- 안상우, 최환수, 御醫撮要-실진의서의 복원,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4/1), 1998.
- 안상우, 최환수, 御醫撮要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 안상우, 高麗 醫書 「備豫百要方」의 考證, 서지학연구, 2001.
-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4.
- 張燦琿, 中醫古籍文獻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98 영인.
- 국역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민족문화추진회(<http://www.minchu.or.kr/>)
-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www.jisik.kiom.re.kr>

